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승가의 근점은 곧 수행”

조각가사(袈裟)의 유래(由來)

아함부(阿含部)의 <마하박가> 8권에 보면 조각을 이어 만든 가사(袈裟)의 유래에 대한 글이 적혀있다. 당시에 비구 스님들은 조각을 하나도 이어 붙이지 않은 상아색의 가사를 입었다 한다. 재가자들은 그 걸 보고 마치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장자와 같다고 비난했다.

제자들이 이를 부처님께 보고 드리자 부처님은 ‘조각을 잊지 않은 가사를 입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조각을 잊지 않은 가사를 입는 비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당시에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계시다가 탁카니키리로 가는 도중에 마가다국의 들판을 지나게 되었다.

논들은 풀이 질서 정연하고, 선과 논둑이 나란하며, 네모나게 잘 배열되어 있었다. 부처님은 이를 보시고 아난다 존자에게 물으셨다. “아난다여, 저 풀과 논둑과 선이 질서정연하고, 네모나게 배열되어있는 것이 보이느냐?” “예, 부처

부처님, 논둑 보고 조각 가사 고안 승가의 ‘청빈’ 대표하는 상징

님!” “아난다, 너는 이 들판의 모습과 같은 비구들의 가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예, 부처님”

그리하여 아난다는 조각을 이은 가사를 만들어 부처님께 바쳤다. 그 가사를 본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지혜를 찬탄했고 가사의 조각을 잇고 솔기를 만들어 잘라진 조각들을 기워서 만든 것을 찬탄하셨고 삼의(三衣)를 모두 기워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조각을 이은 가사를 만들라 분부하신 이유는 같은 아함부의 <줄리박가> 11장에 보면 그 일화가 상세히 나온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아난다 존자(尊者)는 묘삼비의 어느 나무 밑에서 좌선에 들었다. 그 곳은 묘삼비의 우테나 왕 소유의 숲에서 가까웠다.

그 때 후궁들이 왕과 함께 산책 나왔다가 아난다존자의 설법을 듣고 환희에 빠져 500벌의 가사를 존자에게 공양했다. 500벌이나 되는 가사를 보시하였다는 후궁들의 말을 듣고 우테나왕은 존자를 비난하면서 그 사문은 장사를 하려는가 아니면 상점을 차리려나라고 비웃었다.



경허선사 금관가사

“그리하여, 우테나왕은 아난다 존자를 방문해 예를 갖추고 묻는다. “존자여, 그 많은 법복으로 무엇을 하렵니까?”

“낡은 법복을 가진 비구들에게 주렵니다.”

“그럼, 낡은 법복은 어찌렵니까?”

“평상시에 입는 법복을 만들려 합니다.”

“그럼, 낡은 평상복은 어찌렵니까?”

“하의(下衣)를 만들려 합니다.”

“그럼, 원래 낡은 하의는 어찌렵니까?”

“이불땀개를 만들렵니다.”

“원래 땀개는 어찌렵니까?”

“바닥 깔개를 만들렵니다.”

“낡은 바닥 깔개는 어찌렵니까?”

“문간에 까는 신발 뉘개를 만들렵니다.”

“그럼, 낡은 신발 뉘개는 어찌렵니까?”

“걸래를 만들렵니다.”

“낡은 걸래는 무엇 만들렵니까?”

“잘게 잘라서 진흙에 반죽하여 바닥에 바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석가의 아들들이 이 사문(沙門)들은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모든 것을 아껴 이용하고 하더라도 낭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500벌의 승복을 더 공양하여 모두 1000벌의 승복을 공양하였다.

승가의 소유물은 모두 청빈과 검소를 근간으로 소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유해진 한국의 승가에서는 과소비와 미덕이 아닌 듯한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다. 부처님의 혜명(慧命)은 부처님의 생활기준을 근간으로 해야 이어진다. 근검은 곧 수행인 것이 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중생 염원, 형형색색 나비로 승화

성륜스님 작품전 ‘꿈’... 5월 22일까지

나비는 인간의 염원을 담고 훨훨 날아간다. 때로는 붉음이 되고 때로는 노랑이 때로는 검정이 되어 제 각각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하늘거리는 꿈은 주변을 맴돌며 중생을 웃고 울게 만든다. 나비는 그 모든 희노애락의 근원에 있었다.

성륜 스님의 작품전 ‘꿈’이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YOON갤러리에서 열린다. 3년간 유화 작업으로 완성한 그림 25점은 인간의 꿈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

묵으로 선의 세계를 펼쳐오던 스님은 이제 유화 작업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욕망 그 색채의 꿈을 펼쳐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때 꿈이 다르고 대학생 때 꿈 또 직장인이 되어서 꿈은 변화잖아요. 하지만 늘 이 꿈을 안고 달려나가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수행자의 꿈이 고행을 통한 피안의 세계를 염원한다면 중생의 삶은 다양한 꿈의 실현을 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두의 꿈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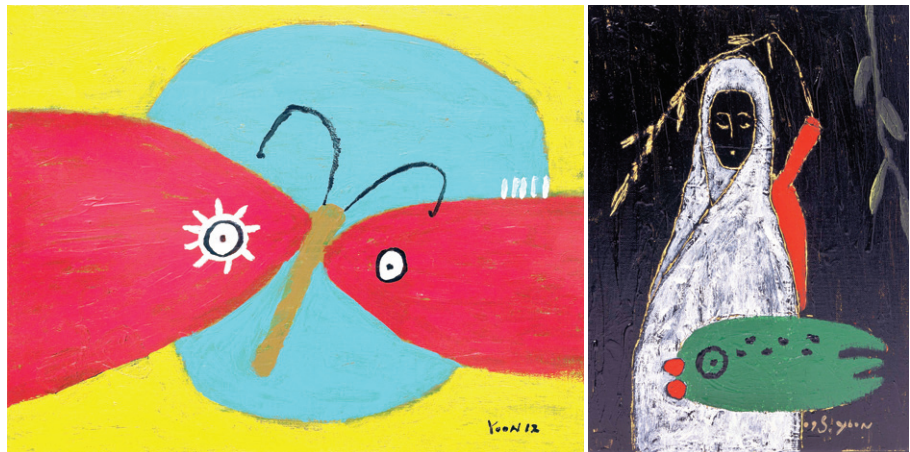
스님의 그림 작업은 고행과 같다.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3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서 선의 세계를 표현해오던 스님은 이번엔 꿈의 세계를 나비로 화관에 담았다.

“유화 전시는 20년만입니다. 그동안 주로 수묵 작업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유화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비를 표현하기에는 동양화보다는 서양화의 질감이 나아. 그래서 간간히 그려오던 유화작업으로 나비를 통한 꿈의 세계를 펼쳐보고자 했습니다”

그로서 인간의 열정을 빨강으로 평화와 안락을 기원하는 염원을 노랑으로 저 먼 피안의 세계를 그려낸 흰색은 인간의 다양한 꿈의 세계를 펼쳐냈다. 그리고 바탕은 작품마다 개성 있는 터치로 질감을 달리해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세계를 표현해낸다. 특히 ‘영혼의 목소리’라 명명한 남색 바탕의 흰 나비에 대해 스님은 “남색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세계의 깊이를 그려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 작품이 대부분 나비로 주요 소재로 등장하지만 한 점만은 예외인 작품이 있다. 검은 바탕에 흰색의 천을 두른 관음상이 유독 눈에 띈다. 스님은 이 작품은 수행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죽비를 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어느날 그림을 그리다 보니 관세음 보살님이 저를



성륜 스님은 5월 22일까지 나비(사진 왼쪽)를 소재로 한 ‘꿈’ 전을 연다. 사진 오른쪽은 ‘관음상’

꿈을 향한 인간 열망 표현한

나비 소재 25점 작품 전시

수행자의 울 꿈은 삶 고민

검은 얼굴 관음상으로 펼쳐내

보면 속이 탈 거라 생각 했어요. 출가를 해서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얼굴은 길을 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제 모습을 봤죠. 이런 나를 관세음보살님이 안타깝게 바라 보고 계시는 생각이 얼굴도 까맣게

표현했죠”

그림을 그리며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스님은 그렇게 참회도 붓을 통해 표현해낸다. 그래서 오늘도 스님은 수행자의 고뇌와 번뇌 그리고 꿈을 화폭에 담고 있다.

성륜 스님은 1983년 향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 간략한 터치와 따뜻한 색감으로 부처님 물고기 등을 표현한 작품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국내는 물론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도 다수의 전시를 열었으며 제19회 행원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02)738-1144

정혜승 기자 bwjns@hyunbul.com

“공연계에 큰 획이 되는 작품이고 싶다”

(사)이뵈고, 사찰사를 통해 타악 퍼포먼스 공연 마련

6월 1일~7월 1일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려

불교를 대표하는 목탁, 목어, 범종 등 사찰 사물들이 타악기로 변신했다. (사)이뵈고(예술감독 부명)는 6월 1일~7월 1일 한국불교 문화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뵈고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개최한다.

이뵈고는 사찰 사물을 주제로 타악 퍼포먼스를 공연하는 공연단이다. 2011년 창단된 공연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사찰 사물을 범고 형식으로 특별 제작해 현대적인 난타 퍼포먼스로 연출했다.

공연은 3박 4일간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우연히 사물의 소리를 듣고 삶의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찾아가는 이야

기로 시작된다. 심우도를 통해 다양한 성품을 지닌 이들이 행복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했다.

사물 공연은 4막 10장의 심우도를 통해 혼침도거(僧沈掉擲)의 경계 속에서 일상의 삶이 곧 행복한 세계임을 깨닫게 한다.

또 공연은 관객을 자극한 원초적인 울림과 폭발적인 소리로 웅장함을 선사한다. 또한 악기를 통해 화려한 동작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사찰사물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로 등장해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뵈고 총 예술감독 부명 스님은 “공연은 관객들에게 템플스테이와 사찰 사물 소리에 대한 재발견을 안겨줄 것”이라며 “공연문화계에 큰 획이 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장르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향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02)456-6933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법륜 스님 SBS 힐링캠프 출연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서 촬영, 5월 28일 방송 예정



한다. SBS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이사와의 다음 편 출연자로 법륜 스님이 확정됐다”며 “5월 16일 법륜 스님이 지도법사로 계신 정토도 경북 문경수련원서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륜 스님의 예능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외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MC 김제동의 역할

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날 법륜 스님은 출가하게 된 사연과 민중화 운동으로 구속까지 됐던 일화, 탈북자 국제 구호 운동에 앞장 서게 된 이유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철수 원장과의 인연 등도 공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힐링캠프’ 법륜 스님 편은 28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법륜 스님은 현재 즉문즉설 ‘희망세상 만들기 100강’을 진행하며 대중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에는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 타임스(NYT)의 인터뷰를 통해 스님의 신행·대북인권활동이 소개되기도 했다.

정혜승 기자

바로보인 불법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신간!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요?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갈까요?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요?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특징

-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 코팅 광택약이어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셔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해 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훼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약령사 방문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령사 주지 해과 합장 전파주사님 성심성품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